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Adolescents' Level of School Adjustment by Their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 and Teachers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석사 최지은

부교수 신용주

Dept. of Family Welfare and Community Services, Dongduk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Ji Eun Choi

Associate Prof. : Yong Joo Shin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ceived relationships of the adolescents with their parents, peer and the teachers on their school adjustmen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85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hrough the questionnaire method.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bout sixty percents of the respondents came from middle-class families who were being brought up by their parents.
2. Analysis of data revealed that degrees of relationship of the respondents with their parents and peer were higher than moderate, while the degrees of relationship with teacher was found to be moderate.
3. The adolescents' overall level of school adjustment was found to be at a moderate level.

Corresponding Author: Ji Eun Choi, Dept. of Family Welfare and Community Services, Dongduk Women's University, 23-1 Wolgok-dong, Sungbuk-ku, Seoul 136-714, Korea Tel: 82-2-940-4000 Fax: 82-2-940-4182 E-mail: jieun0605@hanmail.net

4. The adolescents' levels of school adjustment were differed by birth order, father's occupations, family structures,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grade point average and religion.

5.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yielded the results that relationship with the teacher, relationship with the peer, father's caring, birth order and economic status of family were significant factors in explaining the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On the base of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in order to enhance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1. Teacher education focused on guidance and counseling should be included in the teache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2. Parents education focused on fatherhood should be more emphasized.

주제어(Key Words):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 부모-자녀관계(relationship with parents), 또래 관계(relationship with peer), 교사와의 관계(relationship with teache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생애 주기 중에서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특히 적응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상태여서 신체뿐 아니라 인지, 정서 그리고 사회적 면에서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정유진, 1999).

적응은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장에서 일어나고, 특히 청소년기 적응은 과거에는 가정이 그 기능을 거의 전담하였으나, 근래에는 가정의 기능은 약화된 반면 다른 사회적 기능, 무엇보다도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양춘, 1984). 2000년 현재 중학교 진학률이 99.9%, 고등학교 진학률이 99.5%(통계청, 2001)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는 중요한 성장 환경이며, 그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로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꼽

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소위 '부 등교자' 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들을 파악하려는 관심이 증가해왔다. 과거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발생 원인은 단순히 가정의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 즉 결손 가족이나 빈곤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고 보았지만, 현재의 여러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양친과 함께 사는 중류층 가정의 청소년에게도 보편화되며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영자, 1999).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더라도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 특성 변인과 가정 특성 변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특성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업 성적, 종교 유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가정 특성 변인의 중요성도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는데, 이들 연구들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동거 가족의 수, 부모의 결혼 상태 등의 구조적 측면을 주로 포함시켜왔다(정유진, 1999). 그러나 Bronfenbrenner(1986), Emery와 O'leary(1984), Felner와 Felner(1989), McLoyd(1990) 등은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대인 관계 즉 부모-자녀 관계 등의 관계 변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유진, 1999, 재인용).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가족 기능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을 연구하거나(이혜령, 2000), 성격이나 성격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을 다룬 연구

(구자은, 2000; 임유진, 2001; 지수경, 2001)에 차증되어 있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배숙진, 1997; 박소혜, 1995)라 할지라도 부모-자녀 관계 변인에 대하여 부모를 따로 평정한 연구보다 부모를 함께 평정하여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자녀 관계 변인에 대해 부와 모를 각기 평정하여 연구한다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 이외에 청소년과 가장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주요 타자인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사회적 지지 변인에 교사와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임유진, 2001; 구자은, 2000)가 대부분이며,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의 대상은 아동에 국한(이호선, 2000) 되어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개인특성 변인이나 부모-자녀 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수행된 것이 대부분이며, 주요 타자인 부모, 또래 및 교사를 비롯한 여러 관계변인들을 함께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세 가지 관계 변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하여 가장 중요한 관계변인이 되는 주요 타자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려 한다.

2. 연구 문제

-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생활 적응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개인 특성 변인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장호성(1987)은 학교의 교육적 상황에서의 적응의 개념을 지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적 과정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부적응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설명하였다. 주현정(1998)은 학교생활 적응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모든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 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유진(1999)은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 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성별, 학급 성적, 종교의 유무 등 개인특성 변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이혜령, 2000, 주현정, 1998, 정유진, 1999), 배기명(198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학급 성적이 좋을수록(주현정, 1998; 구자은, 2000; 이강선, 1999), 종교가 있는 청소년일수록(김지혜, 1998; 이강선, 1999), 부모 양친이 생존하는 청소년일수록(이강선, 1999), 부모의 결혼 상태가 기혼일 때(이강선, 1999) 학교생

1) 개인 특성 변인 : 성별, 출생 순위, 부모의 직업, 가족 구조, 부모의 결혼 상태, 가정의 경제적 지위, 학급 성적, 종교 유무

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순(199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개인특성변인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학급성적이 좋을수록, 종교가 있는 청소년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 양친이 생존해 있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관계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부모-자녀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배숙진(1997)과 박소혜(1995)는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교사와의 관계 변인을 다룬 연구의 경우 독립적인 변인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사회적 지지 영역의 일부로 포함된 사례(임유진, 2001; 구자은, 2000)가 있을 뿐이며, 또래 관계 변인을 다룬 연구는 연구대상이 아동에 제한(이호선, 2000)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고찰하였던 적응의 개념에 기초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관계변인을 파악하려 하였다. 즉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의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교사, 또래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모-자녀 관계

태내에서 시작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인간이 맺게 되는 최초의 관계이며, 인간은 이 관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부모를 모방하거나 동일시함으로써 인지 구조가 변화되고, 행동 양식을 모방하고 학습하며 생활 습관이나 도덕성이 형성된다. 이 때 부모는 자녀에게 삶을 위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동일시의 대상이 되면서 최초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가족들과 상호작용, 그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였는가는 아동

의 성격 형성이나 지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Brunfenbrenner & Mahoney, 1975; Medinnus, 1967; Skeels, 1966). 인간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물리적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가정의 심리적 환경 조건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으로서 물리적 환경이 성격 형성과 자아 개념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심리적 환경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남숙, 1997). 이러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가족 구성원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지각하는 심리적 자극, 압력을 말한다. 이에 포함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부모-자녀 관계 혹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애정과 신뢰, 존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연결의 영속적 관계이며 교육적, 문화적, 비합리적, 비타산적인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또래 관계

또래란 연령이 비슷하거나 성숙 수준이 비슷하여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Perry와 Bussey, 1984; Santrock, 1990). 아동이나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장, 발달해 감에 따라 부모와 가족의 품을 벗어나서 보다 넓은 사회적 접촉을 해 나간다. 그 중에서도 비슷한 연령의 또래 집단은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과 모범이 되고 또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인간의 사회 및 성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춘재, 1988).

또래 관계는 일반적으로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 구조로서 또래간의 사회적 교환은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아동과 성인간의 사회적 교환과는 뚜렷이 구분된다(Hartup, 1992). 또한 가족과의 관계와도 차이를 보이는데 가족은 일반적으로 사랑하고 돌봄으로서 관계가 유지되지만 또래와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영미, 2000). 또한 청소년기의 교우

생활은 사회적 발달에 안정감을 촉진시켜주고 타인과 원만하게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되며, 관대함과 이해력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사람을 비판하는 기회를 주며 충성심의 발달을 촉진시킨다(Hurlock, 1973).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기의 교우 관계, 즉 또래 관계는 그들의 사회성, 건전한 정서 발달, 자아 개념 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룬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울 시내 11개 교육청 중 지역적 특색이 상이하여 대표성이 있다고 믿어지는 강남과 강북의 2개 교육청을 선정하고, 관할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각각 2개교씩 총 4개 고등학교를 선정한 후, 학교의 조사 승인을 얻어 4개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001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4개교를 대상으로 41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406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기재가 부실한 21부를 제외한 385부를 최종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15-16세의 남녀 청소년이다.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측정도구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1> 측정도구

변 인	문항수	점수 범위	비 고	신뢰도
성별	1	2개 범주	1=남자, 2=여자	
출생순위	1	3개 범주	1=첫째, 2=둘째, 3=셋째 이상	
부모 직업	1	5개 범주		
부모 생존	1	2개 범주		
부모 결혼 상태	1	5개 범주		
가정 경제적 지위	1	3개 범주		
학급 성적	1	4개 범주		
종교 유무	1	2개 범주		
부모-자녀관계	25	4점 리커트	아주 그랬다-4점, 전혀 안그랬다-1점 (돌봄과 과보호, 부와 모 각각 측정)	$\alpha = .87,$ $\alpha = .91$ $\alpha = .76,$ $\alpha = .81$
또래관계	25	5점 리커트	항상 그렇다-5점, 거의 그런일 없다-1점 (획득점수 낮을수록 또래관계 긍정적)	$\alpha = .93$
교사와의 관계	10	5점 리커트	항상 그렇다-5점, 거의 그런일 없다-1점 (4, 5, 7번 역산처리)	$\alpha = .84$
학교생활 적응	16	5점 리커트	강한 동의-5점, 강한 반대-1점	$\alpha = .82$

Cronbach' 계수를 구하고,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각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차이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대상자수(명)	백분율(%)
성 별	남학생	183	47.5
	여학생	202	52.5
출생 순위	첫째	196	50.9
	둘째	159	41.3
	셋째이상	30	7.8
아버지 직업	생산직	65	16.9
	서비스직	78	20.3
	사무직	153	39.7
	관리·전문직	77	20.0
	실직 및 무직	7	1.8
어머니 직업	생산직	18	4.7
	서비스직	73	19.0
	사무직	39	10.1
	관리·전문직	19	4.9
	실직 및 무직	230	59.7
부모 생존	양친 생존	372	96.6
	편부 또는 편모	13	3.4
부모의 결혼 상태	기혼	352	91.4
	사별	3	0.8
	별거	8	2.1
	이혼	11	2.9
	재혼	2	0.5
가정의 경제적 지위	상류층	88	22.9
	중류층	226	58.7
	하류층	71	18.4
학급 성적	1-10등	97	25.2
	11-20등	106	27.5
	21-30등	88	22.9
	31등 이상	91	23.6
종교 유무	종교무	160	41.6
	종교유	225	58.4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모델로 선정된 독립 변인들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가 지각한 어머니의 돌봄은 평균 3.00(SD=0.50), 과보호는 평균 2.09(SD=0.37)로 나타나 대체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지각한 아버지의 돌봄은 평균 2.80(SD=0.56), 과보호는 평균 2.00(SD=0.41)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들은 대체로 아버지와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또래 관계를 측정하는 도구는 김정립(2000)이 청소년의 또래 관계 연구에 사용한 Index of Peer Relations(IPR)로서 또래와의 문제의 심각도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 IPR은 획득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여타 측정 도구와는 달리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IPR로 측정된 본 연구 대상자들이 지각한 또래 관계는 평균 2.20(SD=0.60)으로 비교적 또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사회적 지지 평균은 2.82(SD=0.80), 교사와의 인간관계 평균은 2.87(SD=0.76)이며, 전체 평균은 2.85(SD=0.73)로 나타나 대체로 교사와의 관계를 보통

〈표 3〉 독립변인의 일반적 경향

독립변인	영 역	평 균	표준편차
부모-자녀 관계	어머니의 돌봄	3.00	0.50
	어머니의 과보호	2.09	0.37
	아버지의 돌봄	2.80	0.56
	아버지의 과보호	2.00	0.41
또래관계		2.20	0.60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사회적 지지	2.82	0.80
	교사와의 인간관계	2.87	0.76
	전 체	2.85	0.73

이하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생활 적응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생활 적응 실태는 어떠한가?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 실태는 평균 2.93 (SD=0.60)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의 정도는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정도가 보통 정도로 나타난 것은 이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가정의 경제적 지위, 가족 구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중류층의 가정에서 양친과 함께 사는 청소년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개인 특성 변인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개인특성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성별, 가족 구조, 종교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정도

<표 4> 학교생활 적응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내 용	평 균	표준편차
학교생활 적응	2.93	0.60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혜령(2000), 주현정(1998), 정유진(1999)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 결과 및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였다는 배기명(1983)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라 볼 수 있다.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양친과 함께 사는 청소년(M=47.16)이 편부모와 사는 청소년(M=41.92)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강선(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편부모의 이유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에게 가정의 불안정이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적응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종교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M=48.11)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M=45.36)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지혜(1998), 이강선(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조직구조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며 순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출생순위, 부모의 직업, 부모의 결혼 상태, 가정의 경제적 지위, 학급 성적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Scheffe-Test로 사후 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성별, 가족구조, 종교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변 인	N	M	SD	t	p
학교생활적응	남자청소년	180	47.47	10.31	.95	.34
	여자청소년	198	46.53	8.85		
	양친 생존	365	47.16	9.55	1.94	.049*
	편부 또는 편모	13	41.92	9.13		
	종교 무	156	45.36	9.02	-2.77	.006**
	종교 유	222	48.11	9.80		

*p<.05 **p<.01 ***p<.001

〈표 2〉 부모의 직업, 부모의 결혼 상태, 학급 성적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변인		학교생활 적응 M(SD)	F	Scheffe-Test
출생순위	첫째	76.77(13.14)	4.79**	A
	둘째	75.01(14.97)		A
	셋째	68.33(14.14)		B
아버지 직업	생산직	44.54(8.68)	4.55**	A
	서비스직	45.91(8.67)		A
	사무직	48.25(8.50)		B
	관리·전문직	48.57(11.48)		C
	실직 및 무직	36.86(15.91)		D
어머니 직업	생산직	47.17(10.57)	1.20	
	서비스직	44.79(8.33)		
	사무직	48.05(8.25)		
	관리·전문직	46.94(14.98)		
	실직 및 무직	47.46(9.60)		
부모의 결혼 상태	기혼	47.35(9.41)	1.98	
	사별	42.67(2.52)		
	별거	48.88(8.62)		
	이혼	39.91(12.15)		
	재혼	43.00(7.07)		
가정의 경제적 지위	상류	77.86(15.50)	6.27**	A
	중류	76.00(13.15)		B
	하류	70.19(14.40)		C
학급 성적	1-10등	49.47(9.70)	11.90***	A
	11-20등	48.94(9.09)		B
	21-30등	46.68(8.07)		C
	31등 이상	42.20(9.79)		D

*p<.05 **p<.01 ***p<.001

출생순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즉, 첫째나 둘째인 청소년이 셋째 이상의 출생순위를 가진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첫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자녀의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아버지가 생산직, 서비스직보다는 사무직, 관리·전문직 등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청

소년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직 또는 무직 등 현재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아버지를 둔 청소년이 가장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양육된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정순(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직업과 가정의 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게 되어 학교생활 적

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구조로 인해 아버지를 가족의 대표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 청소년에게 심리적, 정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한편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혼인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이강선(1999)의 연구와 달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급 성적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내어, 학급 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급 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좋다는 주현정(1998), 구자은(2000), 이강선(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학급 성적이 좋은 청소년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감과 우월감을 갖고 생활하게 되며 학교 내에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

연구 문제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종속 변인인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개인 특성 변인과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의 관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과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5개변인(교사와의 관계, 또래 관계, 아버지의 돌봄, 출생 순위, 가정의 경제적 지위)이 추출되었는데, 이 변인들은 전체 분산 중 41.6%를 설명하였다(p<.001). 교사와의 관계 변인에 대한 결과는 교사와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 변인의 일부로 파악하였던 임유진(2001), 구자은(2000)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 변인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호선(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부-자녀관계와 모-자녀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평정하여 연구한 배숙진(1997), 박소혜(1995)의 분석차원을 보다 세분화하여 특히 부-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교사와의 관계, 또래 관계, 아버지의 돌봄, 출생 순위, 가정의 경제적 지위 변인이며, 상대적 영향력은 교사와의 관계($\beta=.587$), 또래 관계

<표 7>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단 계	독립변인 (Constant)	종속변인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β	F	R ² (Adjusted R ²)
1	교사와의 관계		.587***	162.162	.344(.342)
2	또래와의 관계		.204***	95.792	.383(.379)
3	아버지의 돌봄		.147**	68.538	.401(.395)
4	출생순위		.124**	54.595	.416(.409)
5	가정의 경제적 지위		.098*	45.195	.426(.416)

*p<.05 **p<.01 ***p<.001

($\beta = -.204$), 아버지의 돌봄($\beta = .147$), 출생 순위($\beta = .124$), 가정의 경제적 지위($\beta = .09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사와의 인간 관계가 원활하고 신뢰감이 깊을수록, 또래 관계가 좋을수록, 아버지가 잘 돌보아 주고 친밀하다고 지각할수록, 출생 순위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 변인이 34.2%를, 또래 관계 변인이 3.7%를, 아버지의 돌봄 변인이 1.6%를, 출생 순위가 1.4%를,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0.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변인 중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교사와의 관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연관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돌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일깨우고 있으며, 최근의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의 다양화와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V. 요약 및 제언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변인 및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등의 관계변인들의 영향력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측정된 결과,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 특성 변인에 따른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성별, 가족 구조, 종교 유무)와 일원변량분석(출생순위, 부모의 직업, 부모의 결혼 상태, 가정의 경제적 지위, 학급 성적)을 실시한 결과, 출생 순위, 가족 구조, 아버지의 직업, 가정의 경제적 지위, 학급 성적, 종교 유무 변인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출생 순위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관리·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양친과 함께 살고 있을수록, 학급 성적이 좋을수록, 그리고 종교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성별, 어머니의 직업,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변인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청소년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교사 연수와 교육은 교사에게 정서적 지원을 줄 것이며, 이는 교사와 청소년의 관계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교사 지원의 결과 교사가 청소년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능력을 평가하여 장점을 부각시켜 줄 수 있다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와 청소년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는 것도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그밖에도 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개발하는 것도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 고민이 있는 학생이 63.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모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이 8.6%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조선일보, 2002. 7. 28), 교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 내에 상담 교사를 상주시키거나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서 부모-자녀 관계, 특히 아버지와 청소년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어머니와 청소년간의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육관, 아버지는 주로 가정 밖에서 경제생활을 담당하고 어머니가 전적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양육 방식에 변화가 요청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아버지와 자녀간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 서 아버지 대상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요구된다.

넷째, 긍정적인 또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또래 관계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 친구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쉽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이므로 또래의 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위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개인 특성 변인과 함께 주요 타자인 부모-자녀 관계, 또래와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점,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파악한 점 등이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 서울의 2개 구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만을 연구대상에 포함한 것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남숙(1997).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 개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미(2000).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립(2000). 사회성 증진프로그램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소아, 청소년의 또래관계, 소외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혜(1995). 국민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기명(1983).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에 따른 적응문제 및 적응기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자아개념, 학교 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춘(1984). 청소년 문제와 노인 문제. 서울: 정음사.
 이강선(199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학교생활 적응.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순(1996). 학생의 가정문화와 문화습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춘재(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이호선(2000). 아동의 또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령(2000).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유진(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호성(1987). 자아개념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유진(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일보, 2002. 7. 28일자. 청소년 가정생활.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를 중

- 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자(1999).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폭력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01). 졸업생의 진학률.
 Bronfenbrenner, U. & Mahoney, M. A. (1975).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2nd ed.).
 Hinsdale, Ill: The Dryden.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
 742.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215-
 228.
 Felner, R. D. & Felner, T. Y. (1989). Primary
 prevention programs in the educational
 context: A transactional ecological framework
 and analysis in L. A. Bond & B. E. Compas
 (Eds.). *Primary prevention promotion in the
 schools*. Newbury Park, CA: Sage.
 Hartup, W. W. (1992). Peer relations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NY: Plenum press.
 Hurlock, E. B. (1973). *Adolescence Development*. NY:
 McGraw Hill.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Medinnus, G. R.(ed.) (1967).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Y.: John Wiley.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J: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Santrock, J. W. (1990). *Adolescence: An international*.
 Dubuque, Iowa: Wm. C. Brown.
 Skeels, H. M. (1966). Adult status of children wit
 contrasting early life experiences: *A follow up
 stud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No. 105.

(2002년 10월 30일 접수, 2003년 2월 11일 채택)